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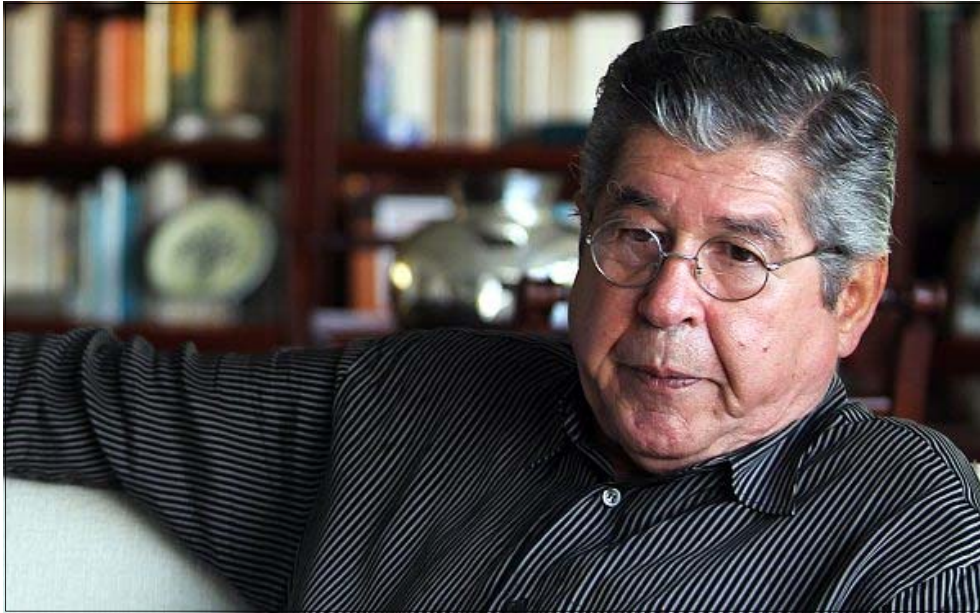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 문학상 스캔들

우석균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이 전대미문의 스캔들로 휘청거렸다. 1987년부터 매년 열리는 이 도서전은 참가 출판사 규모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이어 세계 2위, 일반인 참여 규모로도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도서전에 이어 세계 2위이다. 명실공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도서전인 것이다. 또한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도서전을 제치고 스페인어권을 대표하는 도서전으로 흔히 인식된다. 스페인어로 ‘국제도서전’의 약자인 FIL(Feria Internacional del Libro)하면 으레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일 정도이다. 가령,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 행사의 일환으로 1993년부터 열리고 있는 ‘홀리오 코르타사르 라틴아메리카 석학강좌’(Cátedra Latinoamericana Julio Cortázar)는 지난 5월 고인이 된 카를로스 푸엔테스가 주도하여 그와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매년 참석했다. 소위 ‘봄’ 소설 4인방 중 3인이 관련된 이러한 행사가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의 위상을 높인 것이다.

스캔들은 지난 10월 초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의 권위 있는 문학상인 ‘로망스어 분야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 문학상’의 수상자가 페루 소설가 알프레도 브라이스 에체니케(Alfredo Bryce Echenique)로 정해지면서 터졌다. 브라이스 에체니케는 『홀리우스를 위한 세상』(Un mundo para Julius, 1970)과 『마르틴 로마냐의 과장된 삶』(La vida exagerada de Martín Romaña, 1981)으로 문학적인 성취도로는 손색이 없는 작가다. 하지만 그의 신문 기고문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표절 시비에 휩싸여 있었다는 점이 문제였다.

수상이 결정 나자마자 항의가 빗발쳤다. 그리고 10월 19일 멕시코의



알프레도 브라이스 에체니케

작가 후안 비요로(Juan Villoro)가 특유의 촌철살인의 필치로 이를 비판하면서 사건이 정점으로 치달았다. 멕시코의 『레포르마』(Reforma) 지에 실린 「직업윤리」(La ética de un oficio)라는 글에서 비요로는 문화 영역에도 윤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브라이스 에체니케의 높은 문학적 성취도에도 불구하고 무려 16건이나 되는 신문 기고문 표절 시비에 휩싸인 그에게 수상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질타한다. 자국을 월드컵 우승으로 이끌었다 해서 도핑테스트에 16회나 걸린 전력이 있는 축구 선수에게 발롱도르 상을 주고, 백신을 발명했다 해서 16회나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게 올해의 의사상을 주는 격이라는 것이다.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 문학상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이 저널리즘에서의 표절과 브라이스 에체니케의 문학적 가치는 별개 문제라고 말한 데 대해 비요로는 글을 쓰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다른 미덕도 아니고 글쓰기 윤리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반박한다. 저널리즘이 문학에 비해 하찮은 장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는 것도 비요로의 논지



후안 비요로

중 하나이다. 가르시아 마르케스, 카뮈, 헤밍웨이, 몬시바이스 등을 거론하면서 많은 작가에게 저널리즘은 문학 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나아가 국경 없는 기자회견이 언론인들이 가장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꼽은 멕시코에서는 수많은 기자들이 목숨을 걸고 글을 쓰고 있는 마당에 글쓰기 윤리가 어떻게 가벼운 것이냐고 반문한다.

비요로는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의 개최기관인 과달라하라 대학 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의 최고위직에 있는 라울 파디아야(Raúl Padilla)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으로 글을 마친다. 규정상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번복될 수 없다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규정의 다른 조항을 보면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수상위원회에게 결정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수상 철회를 요구했다.

라몬 파디아야에게 화살을 돌린 것은 단지 그가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의 최고책임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파디아야는 페루의 문학 비평가인 훌리오 오르테가(Julio Ortega)와 둘도 없는 친구이다. 그런데 오르테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브라이스 에체니케의 수상 결정을 이끌어냈음이 틀림없고, 심지어 스캔들이 터졌을 때 오랜 우정 때문에 브라이스 에체니케를 옹호하는 발언까지 했다. 따라서 비요로의 요구는 파디야가 오르테가와의 우정 때문에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문학상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미 10월 3일에 멕시코 문단의 어른 중 하나인 오메로 아리드히스(Homero Aridjis)가 표절자에게 15만 달러의 상금을 주느니 150개 학교에 1,000달러씩 기부하라고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 주최 측에 대고 일갈했다. 11월 25일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 개막 다음날에는 올해의 주빈으로 초대되었으며, 카를로스 푸엔테스 사후 멕시코 문단의 제일 웃어른으로 대접 받는 엘레나 포니아토프스카(Elena Poniatowska)가 다시금 수상 결정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브라이스 에체니케는 이미 상을 받았다. 예년처럼 과달라하라 국제도서전 행사기간 중에 수상식이 거행된 것이 아니라 일찌감치 10월 25일에 주최 측에서 사람을 그의 리마 저택으로 보내 상을 전달한 것이다.

우석균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교수